

KIA 김도영 “몸 상태 좋다”…WBC 출전 의지

올해 3차례 햄스트링 부상 시즌 아웃
지난 달부터 타격·수비 등 훈련 재개
1차 캠프 전까지 컨디션 100% 목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간판타자 김도영(22)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을 목표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KIA 관계자는 4일 “김도영은 최근 몸 상태를 끌어올렸고 지난 달 중순부터 합평 2군 구장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타격, 수비 등 기술 훈련을 가볍게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추세라면 2026 KBO리그는 물론, 내년 3월에 열리는 2026 WBC도 참가할 수 있다. 김도영은 주변에 몸 상태를 회복했다며 WBC 참가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강화위원회도 김도영 선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KBO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 WBC 1차 캠프 참가 명단에 내야수 자원으로 김도영을 포함했다. KBO는 최근 KIA 구단에 김도영의 몸 상태와 WBC에 출전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다.

김도영은 내년 1월 9일부터 21일까지 사 이판에서 열리는 1차 캠프 전까지 몸 상태를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부상자로 분류된 김도영은 비활동 기간 제약과 관계없이 구단 트레이닝 파트의 도움을 받아 훈련할 수 있다.

각오도 남다르다. 김도영 측 관계자는 “김도영은 올해 힘든 상황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많이 괴로웠으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신적으로 더 성장한 느낌”이라며 “선수 본인도 멘탈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해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4 프로야구 정규시즌 최우수선수

(MVP)상을 받은 김도영은 올해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만 3차례 다치는 불운을 겪었다. 3월 22일 NC 다이노스와 개막전에서 주루 중 왼쪽 햄스트링을 다친 뒤 손상 1단계 진단을 받고 약 한 달 동안 재활 치료를 했고, 4월 25일 복귀해 한 달 만인 5월 27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오른쪽 햄스트링을 또 다쳤다. 당시 손상 2단계 진단을 받은 김도영은 두 달 이상 이탈한 뒤 지난 8월 2일 엔트리에 재합류했으나 7일 롯데 자이언츠와 방문 경기 도중 수비 과정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시 다치면서 시즌 아웃됐다. 연합뉴스



민헨, 독일축구협회 포칼 8강 진출…김민재·정우영 맞대결 불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유니온 베를린에서 뛰는 정우영(왼쪽)이 4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의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피르스테라이에서 열린 바이에른 민헨과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6강전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정우영은 선발로 나서 후반 38분까지 뛰었으나 팀은 2-3으로 저 민헨에 8강행 티켓을 내줬다. 민헨의 김민재는 후반 41분 투입돼 두 선수의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AP 연합뉴스

“양현종은 KIA의 상징”

2+1년 총액 45억 원에 FA 계약

‘타이거즈의 심장’ 왼손 투수 양현종(37)이 KIA 타이거즈와 인연을 이어간다.

프로야구 KIA는 4일 프랜차이즈 스타인 자유계약선수(FA) 양현종과 계약기간 2+1년, 계약금 10억 원,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액 45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심재학 KIA 단장은 “양현종은 KIA의 상징”이라며 “앞으로 후배들을 이끌며 ‘살아있는 전설’로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동성고를 졸업하고 2007년 KIA에 입단한 양현종은 미국프로야구에 진출한 2021시즌을 제외하고 18시즌 동안 한 팀에서 꾸준히 활약을 펼쳤다. KBO리그 통산 543경기에 등판해 2656과 3분의 2이닝, 186승 127패 9홀드 평균자책점 3.90의 성적을 거뒀다.

양현종은 KBO리그 최다승(210승), 최다 이닝(3003이닝·이상 송진우) 경신 도전을 KIA에서 이어간다. KBO리그 역대 탈삼진 1위(2185개) 기록도 KIA에서 계속 쌓아간다.

양현종은 KIA와 세 번째 FA 계약을 맺었다. 그는 해외 진출을 고려하던 2016년 12월, KIA와 계약기간 1년, 총액 22억 5000만 원에 도장 찍었고, 미국으로 돌아온 2021년 12월 계약기간 4년, 총 103억 원에 FA 계약했다. 연합뉴스

2관왕이나, 첫 우승이나…코리아컵 축구 단판 승부

올 시즌 K리그1 제패 전복 ‘더블’ 도전
광주는 첫 결승 진출…6일 서울서 격돌

공동 최다 우승에 도전하는 K리그1 챔피언전 전복 현대와 첫 결승 진출에 성공한 광주 FC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코리아컵 결승에서 단판 승부를 펼친다.

전북과 광주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을 벌인다.

코리아컵은 2023년까지 대한축구협회(FA)컵으로 불려 오다 지난해부터 코리아컵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결승전 방식도 홈 앤드 어웨이에서 중립 단판 경기로 바꿨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경기장에서 올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전통을 정착시키고자 ‘서울 중립 결승전’이 도입됐고,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2년 연속 결승전이 열린다.

올 시즌 K리그1에서 4년 만에 왕좌에 오르며 통산 10번째 우승별을 챙긴 전북은 2관왕(더블) 달성을 노린다.

역대 코리아컵(옛 FA컵)에서 5차례 우승한 전북이 광주를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하면 포항 스틸러스(6회)와 함께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오른다.

전북은 2022년 코리아컵에서 마지막 우승을 따낸 이후 2023년 결승에서 포항에 2-4로 달미를 잡혀 준우승에 머물렀고 지난해 대회에선 16강전에서 김포FC(2부)에 0-1로 무릎을 꿇었다.

전북은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광주를 상대로 2승 1무(2-2무·1-0승·2-1승)로 우위

를 지켰지만, 두 차례 승리는 모두 한 골 차로 힘겹게 이겨 이번 결승전도 방심할 수는 없다.

이에 맞서는 광주는 역대 첫 코리아컵 우승을 향한 의지가 뜨겁다.

지난해 코리아컵에서 4강 탈락의 고배를 마신 광주는 올해 대회에선 준결승에서 부천FC(2부)를 만나 1, 2차전 합계 4-1로 크게 앞서며 처음 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광주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41실점으로 강원과 함께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광주를 지휘하는 이정호 감독은 부산 아이kons(현 부산 아이파크)에서 현역을 펼 때 2004년 코리아컵 우승을 경험한 터라 이번 우승하면 선수로서 사령탑으로 코리아컵을 모두 들어 올리는 역사를 쓴다. 연합뉴스

kt, 새 외국인 타자 힐리어드 영입 MLB 332경기서 44홈런 친 외야수

프로야구 kt wiz가 빅리그 경력이 있는 새 외국인 타자 샘 힐리어드(31)를 영입했다.

kt는 4일 “힐리어드와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1994년 2월생인 힐리어드는 좌타 외야수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33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18, 44홈런, 107타점을 기록했다. 올해엔 빅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20경기에 나섰고, 마이너리그 트리플A 91경기에서 타율 0.288, 17홈런, 66타점으로 활약했다. 연합뉴스